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22

先德曰 菩薩本爲度他 是以先修定慧
선덕일 보살본위도타 시이선수정혜
空閒靜處 禪觀易成 少欲頭陀
공한정처 선관이성 소욕두타
能入聖道 此其證也 既發度
능입성도 차기증야
他之願 先修定慧 有進則雲布慈門
타지원 선수정혜 유도력즉은포자문
波騰行海 窮未來際 救拔一切苦惱衆生
파등행해 궁미래제 구발일제고뇌중생
供養三寶 紹佛家業
공양삼보 소불가업
豈同塵寂之徒也
기동취적지도야
問今時行者 雖專定慧 多分道力未充
문금시행자 수전정혜 다분도력미충
若也不求淨土 留此穢方 逢諸苦難
若也不求淨土 留此穢方 逢諸苦難
악아불구정토 유차예방 봉제고난
恐成退失
공성퇴실

自心是佛心 自性是法性 從本以來
자심시불심 자성시법성 종본이래
煩惱性自難 握握直然握握
번뇌성자리 성성직연성성
歷歷直然歷歷 依此解而修者
역력지경역력 의차해이수자
雖有無始習氣 以無依住智治之
수유무시습기 이무의주지치지
還是本智 不伏不斷
환시본지 불복부단

답하다. "그것도 각자에게 달렸기 때
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만약
큰마음을 가진 사람이 최상승의 법에
의해 이 육신은 물거품이나 허수아비
와 같고, 육진(六塵)은 허공의 꽃과 같
으며, 자기 마음이 불사이요, 자기 성품
이 곧 법성이라서 원래부터 번뇌는 떠
났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려면 바로 깨
어있고 분명할 때는 그대로 분명하다
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아서 여기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은 비록 오래된 습

옛스님의 말에 보살은 본래 남을 제

남 제도할 서원 세웠으면

먼저 선정과 지혜 닦아야 한다

도하기 위해 먼저 선정과 지혜를 닦는
다. 그래서 한가하고 조용한 곳이라야
선관(禪觀)을 이루기 쉽고, 욕심이 적은
고행(苦行)이라야 성인의 도에 들어갈 수 있
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이미
남을 제도할 서원을 세웠으면 먼저 선
정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 그리하여 도
력이 있으면 자비의 문을 구름 펼쳐듯
하고, 행(行)의 바다에 물결 출렁이듯
하여 미래세가 다하도록 모든 고통받
는 중생을 구제해서 삼보에 공양하며
부처님의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니, 이
어찌 고요한 데에만 들어가는 무리들
과 같단 하겠는가?

기(習氣)가 있더라도 집착이 없는 지혜
로 다스리면 그것이 곧 본래의 지혜이
므로 억제하거나 끊을 것이 없다.

雖有方便三昧 離昏散之功
수유방편삼매 이혼산지공
以知緣慮分別 是真性中緣起故
이지연려분별 시진성중연기고
任性淨而無取攝之相
임성정이무취섭지상
雖涉外緣違順之境 爲了唯心
수섭외연위순지경 위요유심
無自他能所故 愛憎嗔喜 任運不生
무자타능소고 애증진희 임운불생

비록 방편의 삼매로서 혼침과 산란
함을 버린 공도 있겠지만 모든 생각과
분별이 바로 잠된 성품 안에서 일어나
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성품의 깨끗함
그대로에 맡겨 취하거나 거두어들이는
일이 없고, 바깥 인연의 역경이나 순경
을 당하더라도 오직 마음인줄을 알아
서 자타와 주관 객관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이나 미움, 분노와 기쁨이 일어나
지 않을 것이다.

答此亦各在當人 不可一例取之
답차역각재당인 불가일례취지
若是大心衆生 依此最上乘法門
약시대심중생 의차최상승법문
決定信解四大 如泡幻六塵 似空花
결정신해사대 여환포 육진사공화

김원각<시인·역경위원>

가까이서 뵈 큰스님

지용스님

화엄사 선덕

“오늘을 이세상 마지막 날처럼”

화엄사(華嚴寺)를 품고 있는 지리산 자
락에는 2월인데도 벌써 여름모를 풀들이
고개를 들어올리며 봄냄새를 물씬 풍기기
시작했다. 화엄사 경내에 들어서니, 며칠
전 폭설이 내린 서울과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곳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햇살이 따
사르웠다.

화엄사 선덕 지용스님이 주석하시는 만
월당은 일주문 왼편에 자리잡고 있었다.
마당에 따뜻한 봄기운을 쐬려 나온 스님은
우리 일행을 보자 반갑게 맞으며 방으로
안내했다. 아침부터 기다렸으며 함박 미소
를 머금은 스님의 얼굴에서 이웃집 할아버
지 같은 친근한 느낌을 받았다.

삼배를 드리고 자리에 앉으니 스님께서
는 “보잘 것 없는 늙은이를 보려고 먼길 오
느라고 고생했어. 절에서 하루밤 자면서
예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가세요”라며
원주스님께 전화를 걸어 객방을 하나 내주
도록 일러주었다.

그리고 말문을 여셨다. “승종진작을 통
한 청정한 승가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청
정계행을 지키며 끊임없이 정진해야만 합
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지
키기 어려운 말입니다. 나는 출가한 지 55
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예불 때
이 말을 지키려고 마음 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요.”

이 말을 하면서 요즘은 승가에서조차 청
정 계행을 지키는 스님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안타깝다며 스님은 한숨
을 쉬었다. 그리고 스님은 말을 이어 나갔
다.

“예전에는 출가할 때 부모형제와의 인
연을 철저히 끊고, 양식이 없으면 탁발 해
서 먹을 정도로 청빈하게 수행했지요. 그
런데 요즘은 속가나 승가나 먹을 것, 입을
것 등이 넘쳐나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자는 언제든지
결망 하나 지고 떠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스님은 잠시 후 벽장 속에서 낡은 결망
하나를 꺼내 보였다. 세월의 무게를 단번에
짐작하게 해 주는 결망 속에는 평생동안 전
국의 선방을 떠돌며 철저하게 수행한 공력
으로 꽉 채워진 듯했다. 실제로 스님은 19
살 때 금강산 마하연에서 출가에 여태까지
주지 소임 한번 맡지 않고 통도사, 해인사,
화엄사, 대둔사, 봉암사 등 전국의 수많은
사찰을 돌며 수행에만 전념해 왔다.
하지만 스님은 아직도 수행이 모자란다



◁청정계행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수행에 임하는 기본 자세라고 강조하시는 지용스님.

“욕심을 버리세요

언제든 결망 하나 지고

떠날 수 있도록

만사에 걸림없게”

며 몸서리 걸어나갈 수 있을 때까지 전국
의 도량을 돌며 선방 수좌들과 함께 참선
수행에 매진하는 게 낯은 소망이라고 말씀
하신다.

“권속과 문중 의식이 너무 지나쳐 다른
사찰 출신의 스님들은 발불일 곳이 없어
요. 그래서 주지 소임을 맡지 않거나 자신
의 사찰을 갖고 있지 않은 스님들은 나쳐
럼 노후에 편안히 머물면서 수행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게 한국불교의 현실이
지요. 그래서 수행에만 전념 하고 싶어도
노후를 생각해 할 수 없이 소임을 맡게 되
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자신의 상좌들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히는 대령립 현상이 별

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편협
된 문중 의식이 타파되지 않는 수행자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행에만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불교의 앞날은 어두워질 수밖
에 없지요.”

스님에게도 10여명의 상좌가 있었다. 하
지만 현재 연락되는 상좌 스님은 한 명도
없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상좌들도
사찰의 소임을 맡기보다는 스님처럼 전국
에 흩어져 선방을 찾아 수행 중이다. 그래
서 제자들에게 스님의 지나온 행장을 들기
란 어려웠다.

그러나 2개월 동안 곁에서 지용 스님을
지켜봤다는 화엄사의 한 행자는 “지용 스
님 방을 지나가다 보면 문을 열어놓고 참
선에 몰두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님은 70세가 넘는 노
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 청소와 빨래를
손수 하십니다. 법랍이 이 정도 됐으면 상
좌들의 시봉을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
요. 하지만 스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수행
자란 무릇 죽기 전까지 평생동안 정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
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1970년부터 1983년까지 13년동

안 해남 대둔사 북암 옆에 토굴을 짓고 홀독
한 수행을 했던 시절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혼자 지내면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까 타성에 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예불도 일정한 시간
에 모시기 어려운 등 수행하는 데 장애가
많이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대중 생활과
똑같이 죽비를 치고 입선과 방선을 하는
등 철저하게 수행을 했지요. 모든 것이 마
음먹기에 달렸습니. 자신이 성불을 위해
용맹정진을 하겠다고 굳게 마음 먹으면 그
곳이 선방이든 토굴이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지요.”

그때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경험했다며 스님은 그 당시의 일을 다시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한 번은 깊은 잠을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놀라서 잠을 깨
이 있었습니. 가위에 놀린 것 같기도 하
고 꿈을 잘못 꾸 것 같기도 했지요 아무튼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잦아지
더니 급기야는 고열에다 복통까지 앓아 사
경을 헤멜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며칠이 지났는데 단행 중이던 한
스님이 우연히 내 토굴을 발견하고 쉬었다
갈 생각으로 들어와서 누워있는 나를 보고
는 정성껏 며칠 동안 간호해 줬 거나하

서점가-화제의 책 ①

평생,
일년,
열두달,

삼백 예순 다섯 날, 날마다...
희망을 설계하십시오!

정겨운 12가족이
전국 서점에 소문없이 모였습니다.

5년의 준비 끝에 탄생한 운세이야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12명의 전문 집필진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화제의 책.



사랑하는 연인, 친구, 부모님께
365일 운세를 선물하세요.

취업·창업자에게, 나의 사업파트너는?
영원히 뜻을 함께할 동반자는 과연, 누구?

12가족 운세 이야기™

2001년 뱀띠 해 [辛巳年]

점집이나 전화상담, 인터넷의 운세내용과 얼마든지 비교해 보십시오.
문제는 적중률.....

이제, 최고의 적중률을 책으로 만나다!

오늘의 운세 시리즈①~⑫권
12가족 가운데 특별로 한 권씩 고르십시오.
1질(전 12권)을 구입하시면 2001년 한 해 동안 온 가족의 운세를 알 수 있습니다.

전 12권 각권 값 6,000원

12가족이야기주 전화:02-542-2769 팩스:02-2266-2760 불교전문서점 공급처:법우당02-994-4437~8